

##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애뉴얼 캘린더

*피프티 패덤즈(Fifty Fathoms)* 컬렉션의 중요한 라인인 *바티스카프(Bathyscaphe)*가 새롭게 선보이는 애뉴얼 캘린더 모델에서 스포티한 시계와 유용한 컴플리케이션의 결합을 처음으로 시도했다. 높은 가독성, 견고한 무브먼트, 단방향 회전 베젤에 이르기까지 다이빙 시계 **DNA**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 역시 이번 바젤월드에서 완벽하게 구현했다.

블랑팡 *피프티 패덤즈*의 유산은 수중 환경에서 프로페셔널 다이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세계 최초의 모던 다이빙 워치로 선보여졌던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. *피프티 패덤즈*가 지닌 기능들과 시그너처 디자인은 이후 시계 업계 전반에서 다이빙 워치 장르 자체를 새롭게 정의 내렸다. *바티스카프*는 1956년 *피프티 패덤즈*의 다이빙 시계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매일 착용할 수 있는 좀더 작은 사이즈의 대중적인 버전으로 처음 소개되었다. 견고한 무브먼트, 세라믹 인서트를 갖춘 단방향 베젤을 갖춘 블랑팡의 최신 *바티스카프* 모델에서도 이 공식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.

올해 선보인 *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애뉴얼 캘린더(Fifty Fathoms Bathyscaphe Annual Calendar)*에서는 스포츠 컬렉션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며 데일리 워치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.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인지하는 순서에 따라 배치된 요일, 날짜, 월 창 기능을 *바티스카프* 모델에 처음으로 탑재한 것이다. 이 애뉴얼 캘린더는 2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다르게 끝나는 불규칙한 월의 일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. 따라서 1년에 한 번 2월 말에만 캘린더를 조정해주면 된다.

*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애뉴얼 캘린더(Fifty Fathoms Bathyscaphe Annual Calendar)*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칼리버 6054.P로 트윈-배럴의 인하우스 1150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. 브리지가 더욱 커져 칼리버의 열린 부분 역시 더욱 넓어졌다.

리퀴드메탈(Liquidmetal®) 인덱스를 갖춘 새로운 *바티스카프*의 블랙 세라믹 단방향 회전 베젤이 운석 그레이 다이얼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강조해준다. 새틴 피니싱 처리한 43mm 사이즈 스틸 케이스로 소개하며, 세일-캔버스(sail-canvas)나 NATO 스트랩, 혹은 메탈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.